

이제는 간호다 'Nursing Now' 글로벌 캠페인

Nursing now ICN-WHO 공동추진 ... 간협, 적극 동참 첫 활동 시작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길, 그 해답은 바로 간호사에게 있다. 간호사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금이 바로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때다.

'Nursing Now(이제는 간호다)' 캠페인이 시작됐다. 저평가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촉구하고, 간호사들이 글로벌 건강 어젠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캠페인이다.

국제간호협회(ICN)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버데트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후원한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는 2020년 말까지 계속 진행된다. ICN은 "각국 간호협회에서 캠페인에 참여한 사진과 스토리를 보내주면 ICN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Nursing Now'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하면서 첫 번째 이벤트를 열었다. 한국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이벤트에는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의 방문간호사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신성례 ICN 제3부회장, 윤종필 국회의원이 간호사들과 함께 자리했다.

신성례 ICN 제3부회장은 "간호사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 지속가능개발목표 등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캠페인"이라면서 "간호의 역량과 가치를 알리고,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Nursing Now' 캠페인 출범식은 2월 27일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홍보대사로 영국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Kate Middleton)이 위촉됐다. 캠페인 위원회 공동의장은 영국 하원의원인 로드 니겔 크리스프(Lord Nigel Crisp), 보스와나 보건부장관을 지낸 쉘라 틀로우(Sheila Tlou) 간호사가 맡았다.



대한간호협회는 'Nursing Now' 캠페인에 참여하는 첫 번째 활동을 3월 6일 시작했다.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세계에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사진은 국제간호협회(ICN) 홈페이지에 실릴 예정이다.

간호사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할 수 없다 캠페인 통해 간호의 역할과 가치 높이는 계기

간호사 충분히 배치하고 근무환경 개선해야 간호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 국민건강 지키는 길

홍보대사인 케이트 미들턴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간호사들이 매일매일 이뤄내고 있는 일들에 감사드린다"면서 "간호사들은 자신의 업무와 역할의 가치에 대해 인정받아야 하며, 간호사의 지위와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캠페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드 니겔 크리스프 공동의장은 "간호사와 조산사는 전 세계 보건의료 종사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셸라 틀로우 공동의장은 "간호사들이 미래 보건의료에 대한 의사결정 테이블에서 제자리를 잡고 앉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 스킬을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국제간호협회회장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해답인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힘든 게 현실이며, 간호사들에게는 실제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ursing Now' 캠페인은 버데트간호재단의 'Triple Impact'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간호사가 건강상태 개선(Better Health), 양성평등(Greater Gender Equality), 경제상태 개선(Stronger Econo-

mies)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은 인류가 당연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사가 여러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핵심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건강 이슈와 행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주력하게 될 활동은 다음 5가지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핵심 역할 △간호의 기여도 근거 개발 및 정책영향력 발휘(Evidence of impact) △간호사 리더십과 역량 개발(Leadership and development)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효과적인 간호실무 공유 및 홍보(Sharing effective practice).

세부 활동목표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 교육 및 전문성 개발, 간호표준, 자율규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간호실무를 확산시킨다. 보건의료정책 및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간호사 고위직 확보, 글로벌 간호리더십 프로그램 확산, 간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발굴 등에 주력한다.

주혜진·정규숙 기자

법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구성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법정부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2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 확산을 계기로, 법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정부법률정책을 구성·운영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법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점검단'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어성 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등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 받고, 여가부는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공·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신고센터 등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국립대 내 성관련 상담소 설치, 예방 및 대응 실적 등을 평등 조치계획·실적 평가 시 반영하기로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6.13 지방선거 통해 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하나의 합성! (함께하는 양성평등)' 주제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3월 8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61개 회원단체를 포함해 전국 110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최금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인사를 통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돼야 하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축사를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우리사회의 여성현안에 대해 제언하는 시

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합성(함께하는 양성평등)' 문구가 새겨진 스카프와 '# ME Too, 끝까지 함께 한다!' '지방선거, 남녀동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국미투지원본부' 발족을 선포했다.

이어 여성계가 함께 추진할 활동 방향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모든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미투 운동에 동참 △전국미투지원본부를 발족하고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잡담된 성차별 문화와 인식 개혁을 위한 정부 방안 마련과 실행 노력 촉구 △여성의 정치참여 획기적 개선 및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특단의 조치 마련하도록 촉구 △헌법 개정 시 남녀동수 규정 법제화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수정 기자 sjchoi@

신발도 과학이다. 이제 건강을 신자!

발 피로를 풀어주는 세계적인 특허제품인 NABE 간호사 건강신발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5컬레이상 주문시 : 10%DC
10컬레이상 주문시 : 15%DC
20컬레이상 주문시 : 20%DC

2011년 신제품
기능성 벨크로타입 출시

•NB-N02(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N01(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C03(캐주얼) White ₩4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NB-C01(캐주얼) White ₩34,000 고급 인조 가죽 Size : 225~250

신제품(고급)

•NB-C02(고급형 캐주얼) Black ₩60,000 천연 소가죽, 돈피 Size : 225~250

•NB-SW01(여성용 샌들) Black / Beige 내피 : 소가죽 외피 : 고급인조가죽 Size : 225~250 ₩40,000

•NB-C07(캐주얼) 진박색 ₩6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런닝화 HSO11 네이비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80mm 150,000 → 95,000

런닝화 HSO10 흰색/분홍색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55mm 150,000 → 95,000

남성용 구두 NB-MD02 Brown 소재 : 소가죽 Size : 245~280mm 140,000 → 60,000

스니커즈 Black/White 소 재 : 최고급 소가죽 Size : 225~280mm 180,000 원

24시간 상담 및 주문 : 본사(02)522-4813, (031)8015-4814 www.NABE.co.kr (입금계좌번호) 농협 : 081-01-061915 서시현 NABE (주)나눔과제품 THE ULTIMATE LEG TRAINING SYSTEM